

주간기도정보

2024. 4. 2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느니라”

교회 이탈한 3040세대 절반 이상 “교회로 돌아가고 싶어”

목회연 ‘진정성 있는 교제의 장 마련해야’



코로나19 이후 현장 예배에서 이탈된 3040세대 성도 중 58%는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교회에 ‘직장/사회생활’ 혹은 ‘가사/육아’에 대한 어려움을 함께 나눌 진정성 있는 모임을 원했다.

많은 목회자가 교회의 ‘허리’인 3040세대를 주목하지만, 이들의 신앙은 다른 세대보다 약한 것이 현실이다. 목회데이터연구소(대표 지용근)가 발표한 ‘3040 크리스천 신앙의식 및 생활실태’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지표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한목협)’에 따르면, 3040세대의 삶의 만족도는 30대 41%, 40대 37%로 전 연령층 중 가장 낮았다. 직장/사회생활, 가사 노동 및 육아로 몸과 마음이 지친다는 답변들이 주를 이뤘다. 이 중 3분의 1은 스트레스가 신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코로나 이후 현장 예배를 묻은 결과 3040세대 중 ‘온라인 예배로 이동’ 18%, ‘가나안 성도로 이동’ 14%로 3명 중 1명이 이탈했음을 보였다. 이탈한 이들을 대상으로 다시 교회로 복귀할 의향을 물었더니 58%가 ‘돌아가고 싶다’고 응답했다.

그렇다면 3040세대는 교회에 무엇을 원할까. 조사 결과 ‘3040 직장인 모임’의 필요성에는 70%가, ‘3040 부부 및 육아를 위한 모임(기혼자)’은 무려 80%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유자녀 자들의 대다수(86%)는 탁아 역할을 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부모세대의 신앙이 자녀세대의 신앙과 직결되는 것에 비해, 3040의 신앙교육(자주 가르친다 17%)은 다른 영역인 인성교육(63%), 지성교육(39%), 진로교육(25%)에 비해 한참 뒤쳐졌다. 자녀 신앙교육을 못 하는 이유는 ‘시간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내 신앙도 확고하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신앙교육을 위해 교회로부터 받고 싶은 자료는 ‘자녀와 함께하는 신앙프로그램’, ‘부모 역할교육’, ‘자녀와 대화법’, ‘가정예배 드리는 법’ 등이었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3040세대에 대해 “한때 ‘대한민국 최초의 신인류’로 개인화/개성화 시대를 열었고, 인터넷 시대에 성장한 첫 세대로 본격적으로 대중문화 영역에서 ‘세대 차이’를 일으켰지만, 지금의 현실은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직장과 가정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고단한 세대”라고 설명했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이들을 위해 “치열한 사회에서, 힘든 가정에서 지친 심신을 함께 위로하고 나눌 수 있는 모임을 같은 세대와 관심 영역으로 소그룹화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교회 안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회복하여 힘겨운 일상을 신앙의 힘으로 날마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교회가 내부의 일에 매몰되어 사회적 역할을 못 할수록 공동체적 기여를 중시하는 가치 중심적인 3040세대의 마음은 교회와 더 멀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린도후서 4:5-6)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데살로니가전서 5:14)

하나님, 한국교회의 허리로서 굳게 서 있어야 할 3040세대가 도리어 현장 예배에 이탈되어 신앙의 방향과 삶의 무게로 지치고 목마른 영혼이 된 것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신 것을 전파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친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비취주시길 간구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가 마음이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진리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붙들어 주며 진실함과 선하신 주님의 은혜로 이들을 품고 나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과 주의 군사가 되어 세속적 가치에 순응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게 하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부흥케 하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대북제재 감시 유엔 패널 종료...러, 연장 거부·중, 기권

임기연장안 안보리서 채택 무산...대북제재 위반 감시기능 약화 우려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내달 말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유엔의 대북 제재가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안보리는 28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한 결과,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3개국은 찬성했고, 중국은 기권했다.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한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활동해 왔다.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안보리는 매년 3월께 결의안 채택 방식으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해 왔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유엔 회원국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며 “안보리는 14년간 매년 만장일치로 패널 임기를 연장해 왔다”라고 말했다.

이날 결의안 채택이 불발되면서 전문가 패널의 임기는 오는 4월 30일로 종료된다. 러시아는 자국 요구가 이번 결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는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일 뿐 실제로는 북한과의 무기 거래로 전문가 패널을 지속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이는 마치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CCTV를 파손한 것과 비슷하다”라고 비판했다. 황 대사는 “현시점에서 러시아는 핵무기 비확산 체제 수호나 안보리의 온전한 기능 유지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탄약 및 탄도미사일 공급을 위해 북한을 두둔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수많은 정황 증거에도 불구하고 현재 러시아는 아직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북한과의 무기 거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전문가 패널 활동이 중단되게 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 외교부도 성명을 내고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25일,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표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북한에 강제 송환된 사람들이 여전히 고문과 박해에 직면하고 있다며 중국과 다른 유엔 회원국에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출처: 연합뉴스, 복음기도신문 종합).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린도전서 10:24,33)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사무엘하 22:7)

하나님, 대북 제재 위반 사항과 사례를 보고하는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와 중국에 의해 종료되어 더욱 위태롭게만 느껴지는 북한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사회주의라는 같은 이념과 사상으로 뭉쳐 서로의 불의를 감추고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러시아, 중국, 북한에 주의 공의를 선포하여 주사 진리의 다스림을 받게 하옵소서. 오랜 시간 유엔의 감시와 경고에도 불법을 멈추지 않는 북한의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시고, 복음을 계시하사 십자가로 말미암은 진정한 변화를 통해 모든 악한 행보를 멈추게 하옵소서. 지금도 극심한 고난에 처한 북한 주민과 북송 위기에 있는 탈북자들을 돌봐 주시고 환난 중에 부르짖는 자의 신음에 응답하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로 말미암은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부르신 이를 앎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케 함이라”

기독교 교육 넘어 공교육 변화 이끈다...사단법인 ‘교육비전’ 출범

다음세대가 건강하고 올바른 가치관 속에 자라나도록...‘기독교만이 할 수 있는 일’



“교육비전을 통해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가 오랫동안 꿈꿔온 교육의 회복 비전이 공적 영역에서도 소통되고 영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가 사단법인 교육비전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하나님의 교육이 가득한 세상을 꿈꾸며’를 기치로 내걸고 출발한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는 2005년 11월 설립 이래 기독교 교육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 오다가, 지난해 12월 14일 ‘교육비전’ 창립총회를 하고 인가를 취득해 사단법인으로 승격됐다.

‘교육비전’은 건강한 교육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교육 정책을 연구하고, 사립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컨설팅 등을 진행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과도한 입시경쟁 등으로 교육계의 미래가 암울한 가운데 교육 전반의 쇄신을 위해 함께 힘쓰겠다 목표다.

이장호 교육비전 이사장은 “지금의 교육은 (우리가 나서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한 위기 상태”라며 “다음세대가 건강하고 올바른 가치관 속에 자라나도록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기독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교육에도 하나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독교 교육계가 지혜롭게 소통하고 다가갈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공동의 가치를 찾아내며 조화로운 자세로 나아가 교육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이 나타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로 입시 위주의 교육을 첫손에 꼽았다. 함영주 총신대 기독교 교육 교수는 “한국 교육의 큰 난제 중 하나는 입시 위주의 교육”이라며 “획일화의 문제를 일으켰고 교육을 통해 성취해야 할 다양성과 창의성, 문제해결력 등은 더 이상 이루기 어려운 요원한 문제들이 됐다”고 지적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개인의 특성과 학습자 중심의 다양하고 행복한 교육이 이뤄지길 바랐다. 광성드림학교 정지훈 학

생은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이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기독교학부모운동 소속 도혜연 학부모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해주는 교육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최근 몇 년 사이 개정된 역사 교과서 및 도덕, 기술·가정, 보건 교과서에 심각한 편향성과 왜곡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기독교 단체 및 학부모 연합회 등은 기독교 역사 배제, 이슬람 세계관 중심 교육, 북한 미화, 역사 왜곡, 진화론, 잘못된 성 가치관 기술 등을 지적하며 공교육의 실정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출처: 데일리굿뉴스, 복음기도신문 종합).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앎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베드로후서 1:2-4)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고린도전서 3:19-20,23)

하나님, 가르치고 배워야 할 성경의 지식과 교훈을 아는 자들이 왜곡되고 편향된 공교육으로 위협받고 있는 다음세대를 위해 비전을 품고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른 교육을 받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야 할 학생들에게 경쟁과 세상 정욕을 부추기며 거짓으로 속여 도리어 어리석게 하는 악한 자들의 간계를 파하여 주소서. 진리 안에 있는 교육인들을 통해 학생들의 지성과 영성이 깨어나 부르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이로써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헛된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향해 달려가는 다음세대를 통해 교육과 여러 영역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며 십자가의 깃발이 꽃히게 하소서.

다음은 ‘대륙별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